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더위와 불평등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1.5도씨(1.5°C)', 'Net Zero(넷제로, 탄소중립)', 'UNFCCC(기후변화협약)' 같은 어려운 단어들을 끌어올 필요도 없다. 그저 요즘 날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는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온난화로 지구 어느 곳에서나 기온이 치솟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더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에어컨이 뽕뽕하게 나오는 집안에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으로, 다시 쾌적한 공기조절장치가 있는 회사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더위에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 4명 중 1명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에게 폭염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총 152명으로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근로복지공단은 온열질환 산재로 28건(사망 1명)을 승인했다.

폭염의 가장자리에서 드러난 계급의 불평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은 옥외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와 환경·청소·경비원이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경찰·소방 및 교도소 종사자, 간호사, 하역·적재 종사원,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있다. 이 밖에도 주방장·전자제품 수리원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열·옥외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재로 승인한 온열질환 117건 중 작업 장소가 실내/실외로 구분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93%(75건)가 옥외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폭염에 취약한 옥외노동자 규모는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24%(681만 8,400명)에 육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옥외 등 현장 종사 노동자의 휴게·위생권 보장상황 실태조사' 결과다. 옥외노동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더위가 얼마나 계급의 불평등을 드러내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6차 근로환경조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설 2017. 12. 28.>



자료를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옥외노동자 비중은 상용직 19.6%, 임시직 37.1, 일용직 60.2%로 고용과 지위가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높았다. 특히 60대 고령자의 45.5%가 옥외노동자로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오히려 더위에 더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그들만으로는 부족...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지키는 법 제정해야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50%는 업무 첫날에, 70%는 업무 첫 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첫날 “이 날씨(기온)에는 작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무더위가 노동자를 죽인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다간 죽는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의 불평등한 위치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기온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다.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를 살펴봐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그늘진 장소 제공’이 유일하다.¹⁾ 고용노동부가 여름마다 ‘물, 그늘, 휴식’으로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온열질환 산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10 총선에서 정의당은 폭염 취약 사업장에 기후휴업 제도를 도입해, 평균임금 70%를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폭염에서 노동자를 구하려면 ‘그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후위기 시대, 살인적인 무더위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다. 🍷